

여자의 유쾌한 삶
알리는 유쾌한 한의사...

이유명희



짧은 컷트 오른쪽으로 가늘게 땅아 내린 머리. 외모부터가 평범한 얘기는 하지 않을 듯 보인다. 게다가 반세기 넘게 살아온 흔적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흔적은 없지만 깊이를 증명하는 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이다. 한의사이자 건강교육가인 이유명호(52) 씨는 기존 통념에 반기를 드는 ‘여자 몸 전문 가이드’다. 그는 이번 책을 통해 여자 몸에 대한 ‘비밀 아닌 비밀’을 알리기에 나섰다.

감추기에 급급했던 ‘여자’, 그것도 ‘몸’에 관한 이야기를 책 한 권에 담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대학입학 후 여자를 대하는 사회인식이 이진 아니다 싶어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몇 년 후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자’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오히려 그를 자극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호주제, 호주제만 하다보면 오히려 거부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의사로서 여성 몸에 대한 접근을 시작해 ‘여자의 잘난 몸, 훌륭한 몸’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월경, 유산, 완경(폐경) 등에 관한 얘기들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은 이런 사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중요한 시도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 여성역사를 비롯해 과학·의학 분야에서 여성을 조명한 여러 이야기를 담았다. 실용서, 건강서도 아닌 ‘종합 잡지’라고 소개하며 ‘질의 노래’, ‘약초발 선생의 뒤풀이 토크’ 등 책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직접 짚어주기도 했다.

그는 여자가 즐거워지는 건강법으로 ‘애무’를 강조한다. 생리통을 치유하는 애무법, 자궁질환을 이기는 애무법, 뭉친 가슴을 풀어주는 애무법 등 그림을 보여주며 직접 손으로 만져주고 쓰다듬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말한다.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치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약을 먹고 다른 사람의 통제와

조절을 받기 전에 내가 내 몸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몸은 아프면 스스로 나아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병을 낮게 하는 힘을 가진 긍정적인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남다르다. ‘몸을 살리는’ 다이어트 자습서 《살에게 말을 걸어봐》(2001)에서 이미 말했듯이 ‘자기 몸에 대한 존중감의 회복’으로서 다이어트를 권유한다. 굶어가며 살을 빼지 말라는 거다. 살을 빼기 전에 찌는 이유를 먼저 알고 살 속에 맺힌 한을 풀어야 힘을 강조한다. 그의 홈페이지(www.yakchobat.com)에 있는 ‘우아사(우리는 이미 당연히 아름다운 사람들)’는 과제중 사람들의 모임이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속을 풀어내는 이른바 ‘속풀이 살풀이’로 건강하게 살을 빼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회원들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친목모임을 넘어 ‘마른 것’만을 강조하는 사회에 반대하며 어려서부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저도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문제는 살풀이죠. 미워하던 자신의 살과 화해하고 속풀이로서의 살풀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이니까요.”

그가 연방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책 제목처럼 우리 모두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책 속 일러스트를 통한 ‘버자이너(질) 출신 아닌 사람 누구 있어요?’라는 물음은 당혹스럽지만 공감을 자아낸다. 쉽게 다루지 못했던 자궁, 질, 섹스에 관한 건강하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번 책은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가 읽어야 할 일종의 ‘교육서’다.

“아이들의 성교육 자체가 문제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한 정자만이 들어가서 아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남성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삽입’ 발상이죠. 남자는 암전히 정자

를 기다리지 않아요. 남자가 난막에 달라붙은 무수한 정자 중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해 인도하지 않고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들이 양기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외선 운운하지 말고 햇빛을 받아라. 자외선 말고 좋은 게 더 많이 들어 있는데 공짜로 양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속에 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는 한의사이지만 페미니스트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 시작해 지난 5월 8일 고별 공연으로 막을 내린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에도 4번이나 ‘출진’한 경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열릴 ‘대한민국 여성 축제’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외적으로 여권 신장을 위해 그가 파고든 자리는 한두 개가 아니다.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와 서울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한의원 원장이긴 하지만 여성정치인경호본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택한 길이다.

그에게는 스스로 남긴 과제가 있다. 책에는 ‘애무법’으로 소개됐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의식이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계획을 내비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자궁》은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체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기를 당부하고 싶어요. 떠도는 얘기에 속지도 말고요.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상담해야 합니다. 거리낌없이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자기 몸에 대한 예의란 것을 잊지 마세요.”

그의 책은 의학적 사실을 포함해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지만 무겁지 않다.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그의 소탈한 성격만큼 문체는 솔직하고 꾸밈없다. 자신과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멋있게, 즐겁게 잘 노는 ‘날라리’를 꿈꾼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날라리의 ‘끼’가 엿보인다. ■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